

강진군, 육아수당정책 효과 출산율 79.3% ↑

1인당 6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출산·육아 경제적 부담 완화 계속 거주자 출산비율 75% “양육정책 확대 편성 주력”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출산율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육아수당이 출산율 증가 영향을 미쳤다.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해 출산·육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강진형 육아수당 정책들을 확대 편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강진군 출생아수는 52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9명과 비교해 23명이 늘어 무려 7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80%에 가까운 75%였기 때문이다. 전입자 비율은 25%였다.

강진군 육아수당정책이 실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시키면서 관내 거주자의 출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산율 증가가 지역 간 이동보다는 실질적 출산율 순증가여서 무척 고무적이라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과 비교하면 강진군의 성과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강진군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9.3% 증가로 가장 높았고 A군이 64.7% B군이 31.8%, 광역시 인군 C군이 27.3% 증가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강진 인군 D군은 -48.9%, E군은 -35.7%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려 강

진군과는 크게 대조를 이뤘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출생률은 -5.2%였다.

2023년 12월 한국은행 자료에 출산율 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인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강진군은 강진형 육아수당정책 도입으로 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월 약 86만원에 대한 70%를 지원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특단의 결단을 내렸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60만원 씩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말 현재 누적 2648명, 17억2000만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됐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음이 결과치를 통해 거듭 확인

됐다.

파격적인 육아수당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는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가 증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처럼 강진형 육아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는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양육지원을 비롯해 돌봄, 놀이, 교육 등 아동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형 아이돌봄사업을 비롯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등 놀이시설 확충, 336억원 투입이 확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적극 추진,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강진 조성으로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경로당 순회 방역 실시 전체 595개소 대상

해남군은 관내 전체 경로당 59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방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3일 해남읍을 시작으로 6주에 걸쳐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해 방역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방역작업은 경로당의 내외부 소독 등을 통해 개미, 바퀴벌레, 쥐 등 위생 해충을 박멸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서비스까지 병행한다.

방역소독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승인을 받은 약품을 표준용법에 맞게 사용한다. 경로당 방역 서비스는 하반기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장내 기생충 무료 검사 간흡충, 장흡충 등 총 12종

해남군은 장내 기생충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매년 먼 단위를 순회해 기생충질환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현산면·송지면 지역 주민들 중 검사를 희망하는 708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장흡충 등 총 12종의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했다.

전수검사 대상 면민이 아니더라도 희망자는 9월말까지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생충 질환 및 담관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보건소 감염병예방팀(061-531-3998) 문의하면 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채변통을 수령하여 본인의 대변을 밤알 크기로 채취하여 매주 화, 수요일에 감염병예방팀에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와 양상자 치료비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비용 부담없이 검사할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영암군,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영암군이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은 일반 17대, 우선순위 3대, 배달용 3대인 총 23대이고 최대 지원액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유형·규모·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암군민인 16세 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이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영암군 기후변화대응팀(061-470-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친환경 수돗물 음수대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가 ‘제23회 장성군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에 이동형 스마트 음수대를 설치해 축제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다.

27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에 따르면 이동형 스마트 음수대는 실시간 수질 정보를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냉·온수 기능 탑재 및 자동 컵 세척기에 내장된 스테인리스 컵 사용으로 친환경 음용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음회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수돗물 음용 인식 전환 및 음용률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동진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음수대를 통한 수돗물 음용 홍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가 제23회 장성 황룡강 축제 기간에 이동형 스마트 음수대를 설치해 축제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진도군농수산물수출개척단, (주)판아시아와 300만불 수출 협약

진도군은 지난 25일 오스트리아 빈(Wien)을 방문해 현지 식품수입유통업체인 ‘(주)판아시아(Pan Asia Handels GmbH)’와 300만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판아시아는 2002년에 설립되어 영국 런던 등 6개 지사가 있는 식품수입유통업체로서 유럽 전역에 약 6000개의 아시아 및 현지 거래처를 통해 매년 약 100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도군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은 오스트리아 빈(Wien)에 위치한 아시아식품 전문 마켓인 ‘아시아 푸드 센터(Asia

Food Center)’와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 위치한 한인식품 전문 온·오프라인 매장인 ‘케이-숍(K-shop)’에서 진행되는 진도농수산물 판촉전에 참석한다. 특판행사가 추진 중인 매장은 (주)판아시아의 주거래처 중 2곳이며, 수출개척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장 입점 활성화 및 수출 품목 다양화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은 진도쌀, 견해산물 등 진도 청정 농수산물 15톤 규모이며, 진도 농수산물의 첫 유럽시장 진출로 신시장 개척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

신안군, 제5기 1004굴 양식학교 운영

신안군이 지난 20일 제5기 1004굴 양식학교 입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입교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회 의장, 군의원,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1004굴은 자연 노출식 양식으로 길러져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며, 유통기간이 길고 맛과 풍미가 좋아 가격 경쟁력이 높다.

노동강도가 적고 순소득률이 높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안정적인 양식산업이다.

이번 제5기 1004굴 양식학교는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입교생 12명을 대상으로 1004굴의 생산과 유통, 판매, 관광 분야와 관련된 전 과정을 학습한다. 수료 후에는 양식시설 임대 및 보조사

업, 양식어장 면허확보, 양식 기자재 지원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1004굴 양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2027년까지 공공과 민간주도의 공동관리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110억을 확보해 현재 자은면 등 10개소에 15명의 수료생을 모집·선발해 양식시설을 임대 운영 중이다.

2028년 이후부터는 민간주도형 1004굴 양식 산업화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